

#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

李 相 敦 / 중앙대 법대 교수



## I.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실로 드높다. 신문지면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지 아니하는 날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TV의 종합뉴스에도 그날의 대기오염도가 그래픽으로 보도되고 있을 정도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보편화된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뉴스 미디어는 일반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 II.

환경문제의 종합적인 성격은 대략 다음과 같은



“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오염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며 그외에도 국토의 개발, 자원의 개발, 보건위생 및 산업안전 등 여러가지 면모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면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다.

즉,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오염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며 그외에도 국토의 개발, 자원의 개발, 보건위생 및 산업안전 등 여러가지 면모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행정이야말로 단순히 오염대책행정 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보건위생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한 행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정부조직상 어느 한 부서가 이처럼 광범한 분야를 관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들 관련 행정이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환경행정과 보건위생행정, 그리고 산업안전행정이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해하면 산업안전행정의 대상이며, 공장 밖으로 배출되면 환경행정의 대상이며, 또한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관련되어 있으면 보건위생행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부처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위해성 평가와 관리(Risk Assess -

ment and Management)에 관한 협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환경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필요한 시각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때문에, 기업은 경제활동의 현실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국민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환경오염에 각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환경오염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비판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결국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임으로 기업을 환경오염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없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극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같이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기업, 그

“

원자력 발전은 정상적 운영에서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만일의 경우의 사고에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숙제를 남기기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반대운동의 표적이 되어 왔다.

”

리고 일반국민(특히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이에는 두터운 불신의 벽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바, 각 분야별로 워십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IV.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환경보호에 대한 여하한 논의는 적절한 대안의 제시와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의라 할 것이다. 즉, 원자력 발전은 정상적 운영에서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만일의 경우의 사고에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숙제를 남기기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반대운동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인류는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대신할 대체에너지에 고안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인 화력발전소는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산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호흡기계통의 질병을 일으키며, 또한 그 연료인 석탄은 재를 남기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도 역시 심각하다. 더구나 화

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석탄을 채존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또한 현대의학으로도 속수무책인 진폐증 환자를 대량 배출하여 환자와 그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사회보장제정에도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반공해운동을 반핵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반체제및 반미운동으로 연계시키는 우리 사회일부의 급진적 성향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

이제 환경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는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광역적 환경오염은 그야말로 국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기의 오존층의 파괴는 피부암과 백내장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고 농산품의 수확감소와 해양미생물의 괴사, 그리고 인간을 위시한 동물의 체내 면역의 감소와 같은 종국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안목으로 환경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